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51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5년 3월 23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2015년
투쟁으로 돌파한다!

8기 임시대의원대회 열려!

지부 임시대대가 3월 16일(월) 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모인 대의원 동지들은 2015년 투쟁방침과 지부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특히 2015년은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총파업 투쟁을 결의해야하는 해이다. 대의원 동지들은 올해 총파업 투쟁 승리 없이는 임단투 승리도 없다는 각오로 투쟁을 결의했다. 조민제 지부장은 "대의원들의 결의로 총파업 투쟁 반드시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임시대대에 참석한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전원일 본부장도 "어려운 조건이지만 지역에서부터 싸움을 조직해나가자."며 대의원들을 격려했다.

임금 요구안과 지부교섭 요구안 확정!

이 날 대의원들은 2015년 지부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지부 요구안은 임금 기본급 159,900원 인상, 대체휴일제에 따른 유급휴일 개정, 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이다.

2013년, 2014년 임금인상 최저단일액은 올해는 시행하지 않는다. 지

부교섭에서 최저단일액을 합의한 후 지회별로 최종 임금인상안을 논의했던 방식을 벗어나 임금교섭의 원칙대로 지부교섭에서 임금인상을 모두 다루도록 했다.

또 대체휴일제 시행 이후 아직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유급휴일 규정을 지부교섭에서 정비할 계획이다. 위험성평가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조합과 공동으로 진행하여 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임단투는 4월 총파업부터!

임시대대를 통해 2015년 임단투의 시작을 알렸다. 요구안과 투쟁방침을 확정한 것을 넘어서 4월 총파업부터 임단투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했다. 올해 초부터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라는 정권의 선전포고가 노동자들의 목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사업장 임단협만으로 막아낼 수 없는 최악의 노동법 개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지부 대의원 동지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의 최선두에 설 것을 결의했다. 올해 임단투는 4월 총파업부터 시작된다.

노조파괴로 재판받는 유시영 얼굴 좀 봅시다!

유성기업에서 노조파괴가 일어난지 벌써 4년이 됐다. 그동안 유성기업의 불법행위는 수없이 드러났지만 정작 유시영 대표이사는 처벌은 커녕 재판조차 받은 적이 없었다. 검찰이 끝까지 감싸주며 기소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나긴 투쟁의 성과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였고 형사재판이 열리게 됐다.

재판은 1월 30일 처음 열렸다. 유시영 대표이사는 법원의 과잉보호를 받으며 재판을 받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검찰 뿐만 아니라 법원 역시도 사업주 편향적인 것이다. 정치검찰의 사업주 봐주기를 고공농성, 노숙투쟁으로 이겨냈지만, 아직도 법원의 벽을 넘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3월 27일 유시영 대표이사가 다시 법정에 선다. 노조파괴범의 뻔뻔한 민낯을 똑똑히 확인하자. 그 뻔뻔한 얼굴에서 피눈물이 나게 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는다.

노조파괴 사업주 처벌! 총청권 결의대회

일시 : 2015년 3월 27일(금) 15시
장소 : 천안지방법원

설립 4개월!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한국타이어지회 후원주점

일시 : 2015년 3월 27일(금) 06시부터
장소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